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 제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
2021.12.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감염병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는 공공건축 설계 방법과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공공건축물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지침서는 감염병에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목적으로 공공건축물의 건축 공간설계 및 설비의 기술적 설계기준, 유지관리 시 운영기준 그리고 사업별 실제 적용 사례를 삽화와 함께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는 감염병에 대해 ‘3밀 요소 제거 방식’을 중심으로 오염원 차단과 확산방지, 비상상황 분야로 나누어 대응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61건의 설계요소를 건축계획(배치·평면·입면 38건), 설비계획(환기·위생 13건), 유지관리(운영·장비 10건) 등으로 분류하였다.

감염병 예방설계 대응방향 및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출처: 행복청. (2021). 코로나19에 맞서 공공건축물이 변신한다. 12월 28일 보도자료.

3밀 요소는 밀집·밀집·밀폐 요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침서에서 ▲밀집 요소는 자동화 설비, 항균성능 마감재 등으로 비접촉 환경을 구성해 제거하고 ▲밀집 요소는 시설의 분산 배치, 진·출입구 및 동선 분리 등 거리두기 ▲밀폐 요소는 창호계획, 공기조화 설비 등 환기로 해소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오염원 차단과 확산방지 차원에서 고효율 필터와 자외선 살균 기능의 기계환기설비, 배수관별 별도의 배수처리와 통기관의 분리 설치를, ▲비상상황 대응 분야에서는 비상시 분산 배치에 따른 출입구 통제 및 동선 차단으로 방역체계를 마련하고 건물별 개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다.

행복청은 향후 건립 예정인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합강동 복합커뮤니케이션센터, 평생교육원공공건축물 설계에 이번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